



위대한 소통의 힘

소통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실마리가 되어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소통의 힘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3년 9+10월호
통권 169호

발행일
2023년 9월 25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홍보협력실 042-868-1135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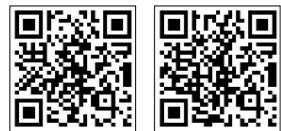
KNF Theme.

04
프롤로그

06
생각 나누기
불행한 불통을 넘어
행복한 소통으로

10
특별한 만남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10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Mission KNF.

14
KNF NOW
2023 함께그린 청렴 HI-STORY

18
KNF 스토리
뜨거운 마음으로 모였다!
KNF 풋살회

22
안전 알림이
가을철 Point Check로
예방하는 안전사고

26
에코 카툰
KNF가 GREEN 내일

KNF Life.

28
계절 따라 여행
가을이면 생각나는 곳
은행나무가 있는
추사 김정희 고택

32
지금은 뉴노멀 시대
방송에서 일상까지,
짧을수록 잘 나가는 숏폼

34
마음의 위로
서로 통하기,
세대 간 갈등 극복하려면

38
문화의 발견

40
제철 건강
자연이 선물한
가을의 맛, 흥합

41
해시태그 이벤트

42
독자 마당

14



18

28



여러분은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예요.

기분 좋은 소통은 우리의 일상에 큰 힘이 되어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고 행복한 소통을 원한다면
따뜻하게 다가가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보세요.

내 생각만을 말하거나 고집하지 말고, 상대에게 귀 기울여보아요.
나와 너, 우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소통이니깐요.



불행한
불통을
넘어

행복한
소통으로

평소 가깝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정작 중요한 순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상대를 가까운 사이로
여긴 내가 잘못된 것일까,
가까운 사이인 나의 생각을
간파하지 못한 상대가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사람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둘의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이다.

글 강진우(문화칼럼니스트)



COMMUNICATION



무작정 나누는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구석이 있어야
소통이 잘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내가 자기 몫 잘 챙기며 자란 이유

장모님이 문득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꺼낸다. “애는 자기 거 잘 챙기면서 컸어.” 처가 식구들이 모이면 으레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다. 아내에게는 두 살 위의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뭔가를 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이 없다가도 아내가 말하면 이상하게 어디선가 돈이 생겼다는 것이다. 처남은 불운을, 아내는 행운을 타고난 것일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막은 이렇다. 처남은 평소 갖고 싶은 것들, 새로 다니고 싶은 학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꼭 필요한 그 순간이 되고 나서야 이리저리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바를 이뤄 주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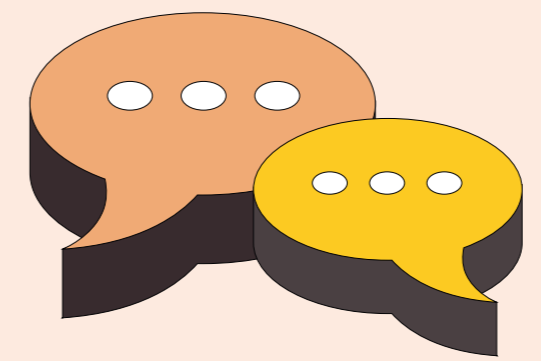
반면 아내는 갖고 싶은 것,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부모님께 얘기했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 때 디지털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다면, 수학여행 두세 달 전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사 달라고 일종의 예령을 건다. 그 바람을 미리 전해 들은 부모님은 그 기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 수학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디지털카메라를 안긴다.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지만,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정 반대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달랐던 것이다. 덕분에 아내는 장모님의 말씀대로 자기 몫을 잘 챙기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해맑은 성인으로 자리날 수 있었다.

사실 처남의 마음도 십분 이해가 간다. 나 또한 장남 특유의 책임감과 눈치로 집안 사정을 살펴 가며 원하는 것들을 미루고 미루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며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만약 나와 처남이 아내처럼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한결 깊게 나누고 함께 헤쳐 나갔다면, 다시 말해 소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한층 충만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숙명적 동반자, 소통

사회적 동물에게 있어 소통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생존의 수단이다. 개미는 이른바 ‘냄새길 페로몬’을 분비해 다른 개미들에게 먹이까지 닿는 길을 알려 주며, 꿀벌은 날갯소리와 춤으로 먹이의 유무를 공유한다. 우리 생활을 하는 원숭이들은 서로의 등을 긁어 주고 털 속 벌레를 잡아 주는 행위를 통해 단합력과 생존력을 높인다.



이러한 소통과 생존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사회적 동물인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보다 월등한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소통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우리 생활을 고도화한 호모 사피엔스에 밀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이후로도 현생 인류, 즉 인간은 소통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말과 글을 발명해 지식과 자산을 쟁취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소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지만, 소통은 여전히 일상의 모든 측면에 있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원한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한순간에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가 될 수 있다. 지인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 중 맺은 인간관계도 소통에 의해 좌우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철천지원수로 전락하는 사이도 있다.

'아싸(아웃사이더의 준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다. 요컨대 소통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소통에 원활함을 더하는 5가지 기술

무작정 나누는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구석이 있어야 소통이 잘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상대의 속마음을 이끌어 내고 이를 온전히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마음가짐과 기술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페기 클라우스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술 5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청'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주력하지만, 이는 진정한 소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듣자. 여기에 적절한 반응, 이를테면 눈맞춤, 끄덕임, 추임새, 요약 등을 첨가하면 더욱 좋다. 내가 이야기를 열심히 들은 만큼 상대도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다.

소통의 방식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어 하는 상대에게 미괄식으로 설명한다면 소통의 집중도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에게 나의 이야기를 이해시켜야 하는 경우, 소통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맞추면 의도대로 대화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감사와 부탁을 표현하는 말은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뒤에 '감사합니다' 혹은 '부탁합니다'가 붙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대에게 겸손하다는 인상까지 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 생겼거나 소통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이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에게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해당 사항을 기억해 냈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소통은 관심의 다른 말이다. 상대에 대해 관심이 있기에 소통에 나서는 것이며, 소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예절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아두는 게 좋다.

페기 클라우스가 전하는 소통의 마지막 기술은 '기다려 주기'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했다고 해서 선불리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자칫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려 한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준비한 모든 말을 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작은 배려심을 발휘한다면,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울수록 중요한 소통 노력

소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통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니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정작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데 있다.

사람의 속마음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서로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상황별 생각을 유추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절친한 사이라는 핑계로 속마음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오히려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기 일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불거지고, 관계가 멀어진다. 따라서 잘 안다고 생각되는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활발하게 속마음을 나누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좋은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다.

소통은 관심의 다른 말이다. 상대에 대해 관심이 있기에 소통에 나서는 것이며, 소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 보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다.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법



요즘을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제는 물질보다 데이터로 더 많은 정보가 처리되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적응 속도는 그리 시원치가 않다. 알 듯하면 저 멀리 달아나는 디지털 세상, 우리는 디지털 세상과 친해질 수 있을까? IT 전문가로 30여 년간 관련 글을 써온 이요훈 칼럼니스트를 만나 '디지털 세상과의 소통법' 그 힌트를 얻어 보고자 한다.

글: 한경희 사진: 김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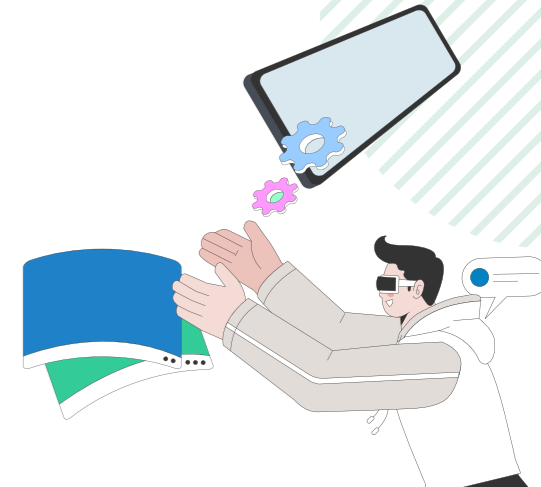
디지털은 전기 문명에 기반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일종의 데이터 형식, 정보의 양식이고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그 도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요훈 칼럼니스트



IT Columnist



Q_ 디지털 문명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시기에 어떤가요.

디지털은 굳이 따지자면 전기에 기반한 파생 기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인류 문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불, 철, 전기 등과는 급이 다르죠. 불, 철, 전기와 같은 것들은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장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디지털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기인 '컴퓨터'는 말 자체에 계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계산기죠. 이 빠른 계산기가 우리의 소통 방법을 바꿔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많이 불편해질 뿐 생존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겠죠? 전염병을 종식시킨 백신이나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인류는 멸망했을지도 모르죠. 그에 비해 디지털이 없는 사회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또 새롭게 살아갈 방식을 찾게 될 겁니다. 즉, 디지털은 전기 문명에 기반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일종의 데이터 형식, 정보의 양식이고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그 도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구이다 보니 우리의 소통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다는 장단점을 가졌죠.



Q 말씀하셨듯 디지털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너무 크고 빠릅니다. 적응과 부작용의 사이에서 삶의 질적 격차도 생겨나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돈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고, 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일반화되었고, 통념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일입니다. 어디에 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와 같은 방역 관련 필수 정보를 앱으로 만들어 전파했고, 이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실패한 사례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 정보에 아예 닿지 못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대한민국 스마트폰 가입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기계에도 번호가 부여되는 IoT 시대이니 이렇게 많은 건데요. 그걸 근거로 스마트폰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표준으로 놓고 행정이나 사회 서비스 방향을 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별감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이번에 현금 없는 버스가 도입됐는데도 교통카드 사용에 서투른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이러한 결제 방식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께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됐죠. 하지만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하면 4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돈의 문제죠.

Q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인가요?


디지털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망가질 때가 올 수 있거든요. 홍수로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는 완전히 스톱이 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것도 대비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였고요. 해킹으로 나의 정보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용당하기도 하고, 나의 소중한 시절이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되는 일도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 우리는 그 계산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짐작만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엔 더 심각한데요. 거짓말을 매우 그럴듯하게 내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퍼트리거나 일부러 퍼트리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넷 세상에서 욕설이나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처벌 받지 않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이런 사회적 압력,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죠. AI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이런 사회적 압력,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죠. AI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 세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더 많이 고민될 듯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이 죽고 홀로 살아갈 아버지를 위해 비디오 작동법을 종이에 적어가며 열심히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해할 능력을 가진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날로그적 경험을 많이 쌓을 것을 권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주제에도 풍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컴퓨터의 조언에 기반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인간다움이 많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인간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신뢰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다움이란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가 하는 의미인데요. 요즘 세상은 점점 자기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로 가고 있어요. 친한 선배보다는 익명의 게시판에 고민을 상담하는 게 더 편한 거죠. 하지만 나와 신뢰를 나누는 사람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같은 편이 되겠지만, 익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고, 그런 관계가 없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이건 미래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겠네요. 



이요훈 IT 칼럼니스트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과 인터넷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아리랑 TV 'BizTech Korea', YTN 사이언스 '사이언스 투데이' 등에 고정 출연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디지털 세계의 앨리스」가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영향평가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미래인문학융합전공 IAB 자문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모두의 마음에 청렴을 물들이다! ‘2023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현장

지난 9월 14일 본사 한마음관 일대에서 ‘2023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행사가 펼쳐졌다. 곳은 날씨에도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며, ‘청렴’을 향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보자.

글. 한경희 사진. 김인규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이야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 중심의 청렴에이전트를 운영하고 KNF 윤리·인권 주간 운영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회사는 지난해부터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함께그린 청렴 HI:STORY’는 히스토리와 하이, 스토리의 합성어로, 40주년의 역사를 함께 그려온 임직원 모두가 다같이 청렴 스토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아 반부패·청렴의식 제고의 의지를 반영해 개최되었다.

마음껏 행사 즐기며 마음 속 청렴 다짐

올해도 역시 가을의 문턱에 맞춰 열린 ‘함께그린 청렴 HI:STORY’ 행사에는 청렴투표, 청렴퀴즈, 청렴네컷, 청렴전시회, 특강,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YES7, NO7’ 선정을 위한 청렴투표 및 퀴즈, 사내 동호회 공연 및 초청 밴드 공연과 함께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 토크 등은 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약 5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위라클(WERACLE)의 청년 유튜버 박위 씨가 희망과 도전의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었다.

KNF인들의 청렴 이야기 ‘토크콘서트’

오전에는 CEO와 직원 간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우리 회사 최익수 사장을 비롯해, 경영관리본부장, 기획처장, 20사번에서 22사번까지 입사 3년 미만의 직원 패널 3명이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익수 사장은 그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취임 이후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소개하며 우수기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며 전도유망하고,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KNF인으로서 ‘내’ 일, ‘내’ 업무, ‘내’ 직장이라는 애사심으로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 





최익수 사장은 그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이 취임 이후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소개하며 우수기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잠깐, 오늘 행사 어땠나요?



정창진 경영관리본부장

토크콘서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들과 함께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곧 미래입니다. 우리 회사의 영문 약자가 KNF(KEPCO Nuclear Fuel)인데 저는 'Korea Nuclear Future'라고도 부르고 싶습니다.

이승환 부장(해외원전사업부)

회사가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의 변화를 주는 좋은 이벤트 같습니다. 행사를 일년에 한 번하고 있는데 반기에 한 번으로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량 파트리더(성과관리팀, 본 행사 총괄 담당자)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고생해서 준비한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행사 전까지 엄청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김초록 과장(재무원가부)

직원들이 함께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내밴드 공연이 제일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대면이 어려워 사내 동호회 활동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사내에 음악회라는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반가웠습니다.

오시연 직원(사업관리부)

패널로 선정되어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상적인 리더 밑에서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들과 나란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씀하신 참여 직원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장승언 직원(집합체설계부)

토크콘서트 때 사장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뵈고 (패널 중 사장님 바로 옆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있음) 다양한 직종의 직원 분들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권찬오 직원(해외사업개발부)

회사 내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자체가 회사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청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직원들과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경훈 연구원(해외원전사업부)

우리 부서원이 사내밴드 기타리스트로 참가하여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즐겁고 또 신기했습니다. 행사가 청렴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지만, 이걸 모두 준비한 기획처 성과관리팀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식사,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까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풋살회는 100명 가까운 회원을 거느린 인기 동호회다.

2012년에 발족해 꾸준히 회원 수가 늘어 현재 회원 수는 총 94명이다.



열정 넘치는 신입회원들의 활약

풋살(futsal)은 FIFA에서 공인한 실내 축구의 한 형태다. 축구보다 작은 경기장에서 작은 공으로 경기를 해 빠른 플레이가 이뤄진다. 골키퍼를 포함해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고 벽을 이용한 패스도 가능하다.

1930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시작돼 남미 전역에서 널리 유행하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됐다. 축구보다 경기장 및 인원의 규모는 작지만, 축구의 기본기와 개인기, 정교한 패스, 빠른 상황 판단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구를 통해 얻는 재미 그대로 즐길 수 있다.

기업 동호회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동호회를 꼽자면 단연 풋살 동호회다. 우리 회사 역시 풋살회는 100명 가까운 회원을 거느린 인기 동호회다. 2012년에 발족해 꾸준히 회원 수가 늘어 현재 회원 수는 총 94명이다. 회사 내부에 운동장이 따로 없어 외부의 풋살장을 빌리는데 매주 화요일 퇴근 후 6시부터 2시간가량 경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23사번 신입직원이 풋살회에 대거 가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은 9명,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이다. 쏟아지는 관심과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존 회원들도 더욱 힘이 나는 요즘이다.

작은 경기장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입사 1년차로 신월성2호기 핵심계 업무를 맡고 있는 OPR노심설계부 박건희 연구원은 풋살회 총무로 동호회 살림을 맡고 있다. 대학교 석사 시절, 연구실 선배의 추천으로 풋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달로 활동한 지 10개월 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동호회 총무를 맡았어요. 풋살은 축구보다 경기장이 작아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공수 전환도 빨라 일종의 농구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와 비교했을 때 공을 터치할 기회도 많고, 지구력보다는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와 지금도 축구보다는 풋살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모였다 KNF 풋살회

축구와 비슷하지만, 축구보다 박진감 넘치고, 더 압축적인 재미가 있는 스포츠가 바로 풋살이다. 올해 신입직원이 동호회로 대거 유입되면서 뜨거운 심장의 신입회원들과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KNF 풋살회'를 소개한다.

글. 한경희 사진. 김인규





필거 장비 운전을 맡은 1년차 TSA성형부 홍원준 기술원은 동기들 따라 풋살회에 가입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비 오는 날에도 비를 흠뻑 맞으며 풋살을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가 좋고 동호회 활동 이후 체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니 풋살이 즐겁다.

“동호회에서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경기 중 엄지척을 보이면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풋살을 할 때 직접 슈트를 차서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해 골로 연결하는 게 풋살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주치는 눈빛만으로 즐거운 순수의 시간

핵설계 업무 1년차의 APR노심설계팀 김종훈 연구원은 운동 관련 동호회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타 부서 선배의 추천으로 풋살회에 가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종훈 연구원은 팀원과 함께 움직이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서 골을 만들어낼 때의 성취감이 풋살을 계속하게 하는 힘인 것 같다고 말한다.

“서로의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을 때 흐름이 연결되는데 이때 짜릿함을 느끼죠. 구기 종목 중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축구와 풋살인데 축구는 경기를 위해 22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풋살은 총 10명 또는 12명이면 진행할 수 있으니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뛰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도 많이 증진되고요. 비를 맞으며 경기를 할 때면 중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신이 납니다.”



박건희

“풋살을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보다 동호회에 들어와서 하면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일정을 맞추는 것, 풋살 구장료, 풋살공, 장비 등 풋살회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김종훈



오주영



홍원준



필거 업무를 맡은 TSA성형부 오주영 기술원은 올해 입사하여 부서 배치를 받고 어떤 동호회라도 하나 가입해보자 마음먹고 있던 차에 동기의 권유로 풋살회에 들어왔다. 평소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풋살의 매력에도 금방 빠져들었다고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해오다가 군대에서 풋살을 잠깐 접해본 것 말고는 풋살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풋살이 축구보다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 개인 역량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지루할 틈이 없고 심폐력 향상에도 상당히 좋은 운동인 듯합니다. 무엇보다 경기하는 순간이 아주 즐겁습니다. 경기가 잘되면 잘돼서 좋고, 또 어느 날은 못 해도 그냥 팀원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즐겁습니다.”


여전히 망설이는 이들을 위한 결정적 한마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동호회 하나쯤은 듣고 싶는데 생각만 있고 실천을 못하는 이들, 관심이 있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예비 풋살러들을 위해 김종훈 연구원이 동호회의 장점을 살짝 귀띔한다. “풋살회를 통해 다른 직무의 동기들을 볼 수 있어 좋아요. 다른 직무의 선배-동기들은 평소 쉽게 만나지 않지만, 동호회 활동으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오주영 기술원은 체력을 올리는 데 풋살 만한 운동이 없다고 자랑한다. “저는 풋살을 하는 몇 달 사이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을 체감했습니다. 확실히 풋살은 실내 근력운동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스타미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풋살로 건강을 챙기면 좋겠어요.”

풋살회 총무 박건희 연구원은 솔직한 말로 풋살회 참여를 독려한다. “풋살을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보다 동호회에 들어와서 하면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일정을 맞추는 것, 풋살 구장료, 풋살공, 장비 등 풋살회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죠.”

풋살회에는 말 그대로 ‘몸만 오시라’고 말한다. 그저 풋살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즐기면 된다고 하니 믿어야 본전이 아니겠는가.

“운동하며 체력도 기르고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동호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풋살회도 지금처럼 즐겁게 경기하고, 부상에 주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풋살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풋살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ission KNF.
+
안전 알림이



가을철 Point Check로 예방하는 안전사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의 계절이 찾아왔다.

가을은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 기상상황에 의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야외활동이 잦아질수록 그에 대한 안전사고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요 Point Check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기상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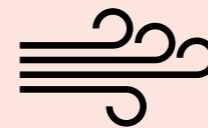
폭염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전 9월에는 7~8월 못지않게 더위가 지속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의해 가을이라고 방심하다간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온열질환 증상 38℃ 이상의 체온, 두통, 현기증, 식욕 상실, 과도한 땀흘림, 창백함, 경련, 빠른 호흡(맥박)	 응급조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워서 다리 약간 올림 → 수분 섭취, 휴식 →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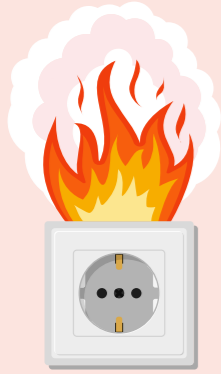
한여름을 지나 찾아온 가을에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 수증기의 증가로 더 강한 에너지원을 가진 태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 '루난'과 같이 올해 가을에도 큰 태풍이 예견될 수도 있기에 이를 인지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주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 • 하천 인근에서 작업 중 집중호우로 빠르게 불어난 급류에 휩쓸림 •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 전선 등에 의한 감전 •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복상 시기 및 호우특보 발효여부 수시 확인 •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병원, 소방서, 경찰 등) 연락망 구축 • 유사 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 •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 등 집중 점검

건조기후



가을은 처서(處暑)로 선선한 날씨이자,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계절이다. 이러한 날씨일수록 주변의 화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사전에 큰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전열기기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으로 인한 화재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발화 • 전열기기가 넘어지는 경우 가연물과 접촉에 의한 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전열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관리하며, 뽑을 때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 누전차단기 및 전원 차단 장치가 있는 제품을 사용 • 과전류에 의한 발화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

한파



2년 전 북서쪽에서 밀려오는 영하 25도의 찬 공기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한 가을이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 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가을은 시작이 늦고 끝은 빨라질 것이며, 일전의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또한 대비해야 한다.



주요 위험요인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체온증(오한, 피로, 의식저하,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 • 동상(찌르는 듯한 통증, 가려움, 피부 변화 및 감각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며 먼 부위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치 •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수시 확인

가을철 질병 예방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일수록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져 추수기에 흔히 발생하는 전염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주요 감염병 또한 인지하고 충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즐거운 야외활동을 보내는 가을을 이룰 수 있다. ^{KNF}

주요 병명	정의	감염경로	증상	잠복기	예방방안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 감염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	가피(딱지) 형성, 발진, 발열, 오한, 두통, 구토, 기침 등	1~3주	피부노출을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도포 풀밭 위에 눕지 않기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혈뇨 등	4~15일	풀밭 위에 눕지 않기
신증후군출혈열	설치류 (등줄쥐, 집쥐 등)	감염된 설치류에 배출된 바이러스가 호흡기나 상처나 피부를 통해 감염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 등	2~3주	쥐 접촉, 서식지 피하기 예방 접종 실시
렙토스파라증	설치류, 소, 돼지, 개 등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노출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부위의 점막을 통해 감염	감기증상, 황달, 신부전, 출혈 등	5~14일	고여 있는(오염 의심) 물 작업 피하기 방수처리된 작업보호구 사용
코로나-19	감염경로 명확하지 않음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전파	열, 가래, 기침, 두통 등	1~14일	마스크 착용 예방 접종 청소와 소독
독감	조류, 개, 돼지, 소 등		발열, 근육통, 두통 등	2~3일	





KNF가 GREEN 내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을 새로 고침한다면 어떨까?
탄소 제로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글·그림. 버리





추사 김정희 고택은 은행나무가 물드는 가을에 찾으면 좋은 곳이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곳
은행나무가 있는

추사 김정희 고택

아스라한 예당평야와 예당호, 호수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귀부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처럼 화려하다.
탁 트인 도로 옆으로 사과밭이 드넓다. 발그레한 사과가
수줍은 듯 나뭇잎에 얼굴을 파묻은 이곳은 충청남도
예산이다. 사과밭을 지나 차가 멈춘 곳은 노오란
은행나무와 함께 자리한 고택 앞이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의형제공원의 조형물



묘자 형태의 안채

숫을대문에서
바라본
사랑채



이 가을 느려서 더 좋은 예산의 핫플

라떼는 말이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면'이 있었다. 어렵פות한 기억 속에 저장된 이 광고는 실제 인물인 이성만·이순 형제 이야기를 각색한 '의좋은 형제'에서 모티브 했다. 형제가 서로의 집에 뱃짐을 옮겨다 놓는 이 이야기의 본고장은 충남 예산 대흥면이다.

봉수산을 배경으로 예당호가 바라다보이는 우리나라 6번째 국제 슬로 시티 마을이다. 마을 어귀에 의좋은 형제공원이 있고, 마을 안에는 옛 보 건소를 고쳐 꾸민 '달팽이 미술관', 옛 관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대흥동한',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호 등 크고 작은 볼거리가 있다.

그 중 예당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알려져 있다. 저수지 둘레는 마라톤 풀코스보다 조금 짧은 40km이고, 면적은 약 9.9km²로 서울 여의도(2.9km²)보다 3배 이상 크다. 특히 예당호는 최근 예산에서 핫플로 손꼽힌다. 402m에 이르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 수변 산책로 등이 모두 예당호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예당호 일대를 벗어나면 드넓게 펼쳐진 예당평야가 끝없이 이어진다. 탁 트인 황금 들녘과 붉게 영근 사과밭이 차창에 스친다. 예산 사과는 천혜의 기후조건 덕분에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하며 새콤달콤하기로 유명하다. 예산 사과가 처음 재배되었던 고덕면에 자리한 은성농원은 제철 사과 따기 체험과 연중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사과파이와 사과잼 만들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는 추사 고택

예산에서 노란 은행나무와 고택이 어우러져 가을의 운치를 한껏 고조시키는 곳이 있다. 주인장의 성품이 느껴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선생이 타고 자란 고택과 그가 잠든 무덤이 있는 신암면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추사의 학문과 업적, 생애가 궁금하다면 고택을 찾기 전에 추사기념관을 먼저 챙겨보자. 추사 연보를 비롯해 유년기부터 유배 생활과 노년기까지 추사의 생애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고택의 솟을대문 왼쪽에 큰 키를 자랑하는 아름다리 은행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다. 추사가 태어나기 전 충청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우물까지 말랐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이 차올랐는데 그때를 맞춰 추사가 태어났다. 풍수자들은 고택이 자리한 땅을 명당 중의 명당이라 한다. 추사 같은 인물이 나온 것도 그 덕택이라는 것이다.

솟을대문을 지나 사랑채에 발을 들이면 ‘ㄱ’자 모양의 사랑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일정한 크기로 잘 다듬은 기단석 위에 사랑채 건물이 자리하고 뒷마루에는 사각기둥이 정갈하게 서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예를 갖춰 손님을 맞이하는 선비를 닮았다. 품격과 기품이 이처럼 남다른 것은 궁궐을 짓던 목수의 뛰어난 솜씨 덕분이다.

추사 고택은 궁궐 건축을 담당하던 경공장의 목수가 손수 지었다. 민가를 경공장의 목수가 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조 임금이 둘째 딸 화순옹주를 영의정 김홍경의 아들 김한신에게 시집 보내면서 한양에 월성위궁과 함께 김한신의 고향인 예산에 53칸짜리 집을 지어준 것이다. 집 규모를 53칸으로 지은 것은 당시 충청도 53개 군현에서 한 칸씩 건축비를 부담했기 때문이다. 김한신은 추사의 증조부이다.

추사는 8살이 되던 해에 백부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추사는 친부모가 있는 이곳에 자주 내려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사랑채 큰 방에는 병풍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보료가 깔렸다. 서탁과 껌썩엔 책이 수북하다. 사랑채 기둥에 걸린 주련(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은 모두 추사의 글이다. 글을 감상하다 보면 마치 갤러리에 찾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주련 아래 해석이 붙어 있어 의미를 새기며 읽을 수 있다.

‘추사 김정희’ 하면 명필, 서예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이자 실학자였으며, 현실 정치에도 진출해 병조판서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영화는 길지 않았다. 55세에 제주도 유배를 시작으로 65세에 함경도 북청 유배까지 10년이 넘는 유배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주련이 정갈하게 걸린 사랑채



사랑채에 걸린 세한도



추사 김정희의 묘소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선생이 타고 자란 고택과 그가 잠든 무덤이 있는 신암면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추사기념관 앞에 세워놓은 추사 김정희 동상



추사의 인생이 작품처럼 드리운 추사 고택

안채는 독립된 ‘ㄱ’자 구조로 별도의 대문이 있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충청지역의 전형적인 반가 형태이다. 6칸 대청에 안방·건넌방·부엌·광이 살갑게 웅기종기 붙어 있다. 대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ㄱ자 틀 안에 고정된다. 그림자도 그렇다. 넓은 세상을 못 보고 우물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개구리처럼 옛 여인의 삶 역시 ㄱ자 공간 안에서 옥신각신했을 것이다. 옛 여인들의 삶이 한눈에 그려진다. 시월드의 원조는 ㄱ자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고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랑채인 영당이 자리한다. 추사의 아들 김상우가 세운 곳으로 사랑채에 걸어 놓은 현판 ‘추사영실(秋史影室)’은 추사가 세상을 떠난 1년 뒤 빗, 권돈이 쓴 것이다. 추사체를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초상화는 제자 이현철이 그렸다. 그림 속 추사는 넉넉한 얼굴에 따뜻한 표정을 지녔다.

고택을 뒤로하고 왼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소나무 숲을 거쳐 추사의 증조부인 김한신의 묘가 있고, 그 주변에 화순옹주의 흥문(열녀문)이 자리한다.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음식을 끊고 14일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로써 화순옹주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가 됐다.

흥문에서 멀지 않은 백송공원에서 나무껍질이 하얀색을 띠는 백송을 마주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소나무는 추사가 25세 때 청나라 연경에서 씨앗을 북대 속에 넣어 와서 심었다고 한다. 일부 나무가지가 과사했고 남은 몇 가지만 독야청청 하늘을 향한다. 비록 불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만, 주변에 분신 같은 백송 묘목들이 여럿 자라고 있어 훗날을 기약해 볼 일이다.

고택으로 되돌아와 추사의 무덤이 있는 용산 자락으로 발길을 들인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며 솔한 비바람을 맞았을 추사 김정희. 영욕이 교차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추사체를 비롯한 수많은 역작을 남겼다. 추사 김정희 고택은 그의 삶이 머무는 공간이다. **KN**

추사기념관에 전시된 추사 김정희 고택



여행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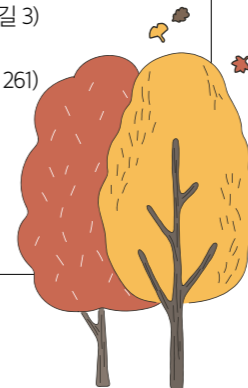
추사 고택에서 14km 정도 거리에 ‘예산시장’이 있다. 요리연구가 겸 기업가 백종원이 예산군과 함께 지역상생프로젝트를 진행해 전국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됐다. 다양한 먹거리와 레트로한 분위기는 그 결과물인 셈이다. 신광정육점, 양조장 백술상회, 신양튀김, 이신복 파배기, 구구통닭, 선봉국수가 유명하다. 주말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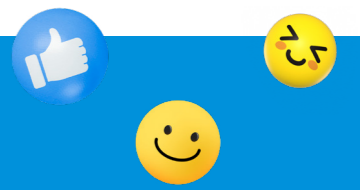
내비게이션 정보

대흥솔로우시티(예산군 대흥면 의종은형제길 3)
예당호출렁다리(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39)
추사김정희고택(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은성농원(예산군 고덕면 대동로 107-25)

문의

관광안내 국번없이 1330
예산군청 관광진흥팀 041-339-7323





숏폼이 불러일으킨 방송 콘텐츠의 지각변동

한 십년 전만 해도 방송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량은 1시간 단위였다. 지상파에서 1시간 단위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왔던 관성이 만든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 방송의 분량은 다양해졌다. 무려 2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10분에서 15분짜리 프로그램도 있다.

과거처럼 편성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대를 지나, 이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매체로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변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방송 콘텐츠의 변화는 이른바 '숏폼(Short Form)'이라 불리는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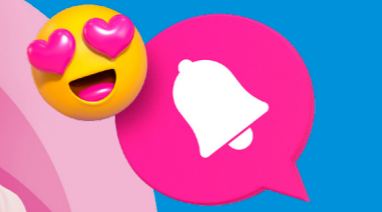
숏폼이라는 형식은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특히 모바일로 이동 간에도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 숏폼 같은 짧은 영상은 '건너낼 수 있는 분량'에 가까웠다. 즉 집이나 극장 같은 외부 자극 없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콘텐츠 소비는 룬품이어도 별 무리가 없지만, 전철 안이나 길거리 같은 공간에서는 길지 않은 숏폼이어야 했던 것이다.

이제 짧을수록 잘 나간다? 이른바 '숏폼'이라 불리는 짧은 영상이 방송 콘텐츠에서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파고들며 '밈(Meme)'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무엇이 이런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그건 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글 정덕현(문화평론가)

방송에서 일상까지,
짧을수록 잘 나가는

숏폼



SHORT FORM

초창기의 숏폼 콘텐츠로 10분에서 15분 남짓의 웹 드라마가 등장했을 때, 그건 그저 작은 소품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아직 인터넷 속도가 LTE 급으로 빨라지기 이전에는 그 짧은 분량도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2013년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달라진 인터넷 환경 속에서 웹 드라마는 급성장했다. <방과후 복불복> 같은 작품이 중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2017년에는 드디어 <연애플레이리스트> 같은 공전의 히트를 친 학원물 웹 드라마가 등장했다.

하지만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했던 것처럼, 미디어 변화가 만들어낸 숏폼은 형식만이 아닌 내용의 변화까지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개그맨들의 방송들이다. <피식대학>을 중심으로 <빵송곡>, <숏박스> 같은 채널들에서, 과거 <개그콘서트> 같은 지상파, 케이블의 무대 개그를 했던 개그맨들은 전혀 다른 색깔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보여줬다.

이른바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는 실제 공감 가는 상황을 리얼한 연기로 보여주는 개그들이 생겼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던 토크쇼부터 스탠드업 코미디까지 새로운 내용들이 이들 채널에서 시도되었다. 분량으로 보면 과거 <개그콘서트>에서도 각각의 코너가 '숏폼'이었던 게 사실이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로 옮겨오면서 이들 숏폼은 그 매체에 맞는 보다 자유로운 웹 예능의 시대를 열었다.

숏폼 플랫폼이 촉발한 챌린지 문화와 밈

하지만 숏폼은 이러한 방송 콘텐츠에서만 지각변동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제 방송은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찍고 편집하고 공개할 수 있는 일상 영역으로 들어왔다. 특히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의 끝없는 진화는 사진만이 아닌 영상까지 일상화시켰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등장한 게 2016년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숏폼 플랫폼 '틱톡'이다. 틱톡은 시작부터 숏폼에 최적화된 상태로 서비스를 열었다. 3초에서 60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 찍어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한 것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이를 촉발시킨 건 이른바 '챌린지' 영상이었다.

우리에게는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로 유명한 이 챌린지 문화는 짧은 영상을 연예인부터 일반인들까지 챌린지하듯 올리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밈(Meme)'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K팝의 글로벌한 성장은 유튜브와 틱톡의 챌린지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유튜브가 K팝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나 일상 브이로그 같은 숏폼 영상으로 전 세계의 팬덤을 끌어모으는 채널이 되어주었다면, 틱톡은 챌린지를 통해 신인들조차 순식간에 높은 인지도를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다.

틱톡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2021년에는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플랫폼들이 등장했다.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기존 콘텐츠의 저력을 갖고 있는 이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이제 숏폼 서비스가 갖고 있는 파괴력과 미래 가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넥슨 같은 국내 기업들이 숏폼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하다.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숏폼

영상이 일상화되면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숏폼 또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챌린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마음에 참여하는 그 방식은 이제 기업의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했다. 과거 광고 홍보 쪽에서 이른바 '캠페인'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숏폼을 통한 챌린지 방식으로 시도되어 효과를 내고 있다. 보수적일 수 있는 명품 브랜드들 역시 숏폼에 뛰어들고 있는데, 루이비통이나 구찌는 틱톡을 활용한 챌린지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숏폼은 이처럼 레거시 미디어들의 방송 영역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모바일을 이용한 홈쇼핑, 숏폼 형식으로 제공되는 뉴스 보도, 매일 짧은 분량으로 나눠 공개되는 영화 서비스, 웹 소설, 나아가 광고서들도 이제 숏폼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숏폼이 주는 피로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정반대의 룬품 형식의 콘텐츠를 찾는 흐름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온 숏폼의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쏟아져 나오는 더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확산하는 데 이만한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KN



서로 통하기, 세대 간 갈등 극복하려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일은 참 어렵다. 특히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의 가치관은 지나온 환경이 다르므로 분명 차이가 있다. 서로가 통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대 간 갈등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본다.

글 이현수

Intergenerational Conflict



기성세대를 위한 조언

3요 질문을 철학적으로 보기 ● '이걸요, 제가요, 왜요'로 대표되는 Z세대의 질문 본능은 이미 유명하다. 괴이하게만 보지 말고 이유를 분석해보자.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욕망이 있다. 어떤 욕망이 그들을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면 상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라는 단어가 있다. Z세대의 소비 경향을 상징하는 데, 해당 상품이 나의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Z세대는 상품 구매에서 '심적 만족'이라는 기준을 중시한다. 이는 월세가 비싸도 남다른 경험이 가능한 코리빙 하우스(co-living house, 기존 셰어하우스를 보완, 공용 라운지·주방·세탁실 등을 추가·확장 운영하는 시설)를 선택하고,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고, 해당 영화·공연·경기를 보지 않아도 표를 구매해 후원하는 '영혼 보내기'로 신념을 드러내고, 양심적이고 착한 가게에 '돈쫓내는' 형태로 표출된다. 이 같은 특성은 회사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동작한다. Z세대는 의미를 알고 납득해야만 행동한다. 일을 금전과 바꾸는 행위를 넘어 내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자아실현의 도구로 본다. 일할 때 이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 업무가 나에게 가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러니 3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정보와 비전을 제시하자. '이걸요'라는 질문에는 해당 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제가요'에 대해서는 선택 이유(적성), '왜요'에는 업무를 통해 당사자가 낼 수 있는 성과와 회사에 안길 수 있는 기여를 설명하면 된다. 물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불성실·무례로 보이기 쉽고, '자동완성'되던 기존 세대와 달리 추가적 설명으로 손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젊은 직원의 열정 어린 자세를 볼러올 수 있다면 그리 손해나는 투자는 아니다. Z세대들은 해당 업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와 의미, 가치를 깨달으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 Z세대는 의미를 알고
- 납득해야만 행동한다.
- 일을 금전과 바꾸는
- 행위를 넘어 내 가치를
- 확인하고 나의 능력을
- 성장시키는 자아실현의
- 도구로 본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마음에 안 든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세대가 기대했건만, 맥락상 이해할 거라 여긴 부분은 다 빼놓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맡긴 일을 끝내고 나면 더 할 게 없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태도도 거슬린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나, 퇴근 시간 되면 기다렸다는 듯 나보다도 먼저 퇴근해버린다. 세대이몽(世代異夢)이다. 최근의 직장 내 세대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야근, 업무지시, 회식 등에서 세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은 어쩔 수 없다'에 대해서도, '리더의 지시가 명확하고 업무관행이 합리적이냐'는 질문에서도, '회식의 필요성이나 조직이 성장해야 내가 있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답은 갈렸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갑갑한 불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직접 대면보다 텍스트를 선호하는 Z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자 ● 2021년 재계를 뒤쫓은 '돌직구 상소문'을 아는가. 모 기업의 4년차 직원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성과급 선정에 대해 항의한 사건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사자가 임원을 직접 대면 하러 간 게 아니라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이다. 왜였을까? Z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과 함께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이다. 영유아 때는 부모가 휴대폰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하며 울음을 달랬고, 초등학교 때 이미 인터넷으로 숙제를 해결했다.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기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 항의가 아닌 이메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내 소통법으로 메시지를 선호한다는 질문에 76%의 Z세대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면 대화, 전화 통화는 두렵다는 대답도 60%였다.²⁾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니 이에 맞춰 업무 지시를 내리자. 업무 지시에 이메일,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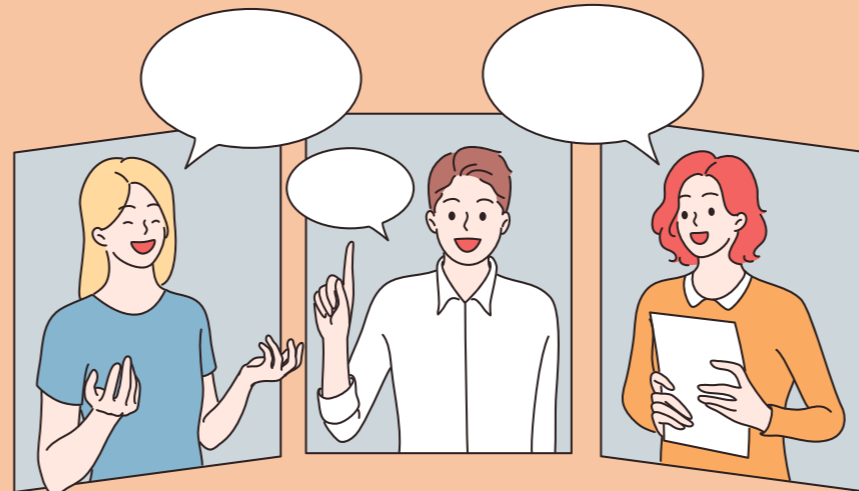
물론 면대 면으로 눈을 보고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화 통화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기존 방식의 장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익숙하지 않은 Z세대 직원은 지시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정확한 소통에 드는 에너지도 절약된다.

부정적 정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 ● 신입만 보면 혈압이 오르는가? 부정적 정서는 상대방보다 내게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부정적인 감정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고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망가뜨린다. 긍정적인 감정보다 오래 지속³⁾되며, 정확도도 낮다.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이 있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초점을 두고, 과장되게 해석한다.⁴⁾ 일부터 내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어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대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기 ● 잘한다 하면 더 잘한다. Z세대는 업무 중 가장 의욕이 드는 순간을 '상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라고 답했다. 물론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만 할 수는 없고 지적할 건 해야겠지만, 긍정적인 피드백 역시 빠뜨리지 말자. 참여 프로젝트, 담당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칭찬하자.

Z세대를 위한 조언

나이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초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왔다. 2022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노후 연금 소득 대체율(20%), 생산 가능 인구 급감(10년 뒤 현재의 절반 수준), 정년 연장 논의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 인구는 향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30~4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시니어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수록, 나와 다른 세대와 원활하게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유능한 관리자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피드백 역시 빠뜨리지 말자.

참여 프로젝트, 담당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칭찬하자.

라떼는 말이야에서 유용한 정보 얻기 ● 상사를 끈대로 생각하면 나만 손해다. 기성세대는 수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체계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지난한 과정과 이유가 존재한다. 라떼는 말이야는 예전이나 유효했던 한물간 정보가 아니라 어떤 SNS나 웹 페이지에서도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이나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의 일부일 수도 있다.

물론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까지 긍정하는 건 아니다. 듣기 괴로운 부분에서 본인이 알고 싶은 방향으로 추가 확장 질문한다면 라떼는 말이야는 귀에서 피나는 수행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업무 처리 팁을 얻고 기성세대는 자긍심을 채우는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웃차림은 기업문화에 맞게 ● 방통은 후한 말의 전략가로 제갈량과 비교될 정도였지만, 손권은 노숙의 강력한 추천을 무시하고 그를 단번에 거부했다. 외모가 볼품없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에 인간은 좌우된다. 어떤 직분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인간에게는 투시력이 없다. 손권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방통을 놓쳤다.

의외로 웃차림 때문에 윗세대에게 미운 털 박힌 직원들이 많다.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넌지시 간접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상사들이 많으므로 최근 대화를 곱씹어 보자. '오늘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나 봐?(지나치게 화려함)', '요즘 업무 부담이 많은가?(지저분해 보일 때)'라는 말은 단순히 문장 그대로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웃차림을 주의하라는 이유는 당신이 신입에 가까울 경우 윗사람 눈 밖에 나기도 쉽고, 부정적 정보를 상쇄할 성과도 적은 편이어서다.

회식으로 상사의 업무 스타일 파악하기 ● 사실 회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 세대에 걸쳐 동일하게 낮다. 특히 의견을 받는 입장인 4050세대의 만족도가 의외로 낮은 편으로, 심지어 2030보다도 만족도가 낮다.⁵⁾ 회식을 재미없어 하면서 부득불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회식이 단순히 의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통,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 정보 습득, 업무 실수 지적 및 반성, 사기 진작, 경직된 분위기 완화,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조 등으로 기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Z세대는 회식을 시간 낭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를 상사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여긴다면 회식에 참가하는 마음이 덜 무거운 것은 물론, 향후 업무 처리 및 조직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된다. ^{KNF}

참고 자료

- 1) 4050는 성과를 위해 야근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상당수 동의했지만, 2030은 그에 반대했다. 리더의 지시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50대는 리더의 지시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라 평가했지만(51.9%), 30대는 정반대로 명확하지 않다(69%)고 평했다. '조직이 성장해야 내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2030은 4050에 비해 긍정적인 답이 현저히 적었다.
- 2) 취업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 Z세대 1,397명 대상, 2023
- 3) 미국 워싱턴대 렌디 J. 라슨 심리학·뇌과학 교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 4) 호주 퀸즐랜드대 로이 바우마이스터 사회심리학 교수
- 5) 20대 24.1%, 50대 20.9%. 직장 내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 대한상공회의소 2020

M O V I E



화사한 그녀 2023.10.11 개봉

감독 : 이승준, 출연진 : 엄정화, 송새벽 등

<닥터 차정숙>으로 흥행력을 입증한 엄정화가 범죄 오락 영화 <화사한 그녀>로 돌아온다. <오케이 마담> 이후 3년 만이다. 엄정화는 화사한 기술이 주특기인 전문 작전꾼으로 마지막 환판을 계획하다가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는 '지혜로 탈바꿈한다. 말는 역마다 엉뚱한 매력을 뽐내며 극의 재미를 살리는 송새벽과 파트너로, 방민아와 모녀지간으로 호흡하며 특별한 재미를 통해 관객들의 큰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익스펜더블4 2023.10.18 개봉

감독 : 스킷 워프, 출연진 : 제이슨 스타뎴, 메간 폭스, 실베스터 스탤론 등

2010년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던 <익스펜더블 4>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시즌3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팀으로 재단장한 <익스펜더블 4>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적의 팀 익스펜더블이 핵전쟁을 막아야 하는 임무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다.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시리즈 사상 최대 제작비 투입으로 최고의 액션 블록버스터를 선보일 거라는 기대를 일으키며, 전 세계 액션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O T T



이두나! 넷플릭스 2023.10.20 공개

출연 : 수지, 양세종 등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가 공개된다. 큰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그룹의 메인보컬이었으나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대학가 세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이두나' 역은 수지, 수지의 상대역 '이원준'은 양세종이 연기한다. 드라마 '안나'로 좋은 연기력을 선보인 수지와 전역 후 돌아오는 양세종의 캐스팅이 화제를 모으며 두 사람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선보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로키 시즌2 디즈니플러스 2023.10.06 공개

출연 : 톰 히들스턴, 오웬 윌슨, 키 호이 관 등

마블 오리지널 최고 히트작! <로키>가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 <로키> 시즌1의 성공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로키> 시즌2는 '로키' 역의 톰 히들스턴뿐만 아니라,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사랑받은 키 호이 관과 <왕좌의 게임> 케이트 디키가 합류하는 등 시즌1보다 더욱 호화로운 출연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총 6부작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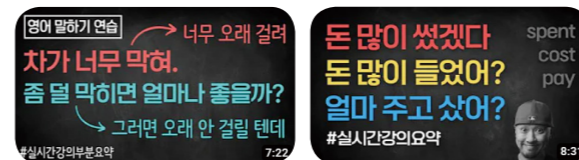
Y O U T U B E



역주행-조선왕조실록

<https://www.youtube.com/@Joseon-Dynasty>

'역덕(역사덕후)' 출신 유튜버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한 조선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귀여운 그림체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활용, 평균 10~15분 동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흥미와 유익성 모두 챙기는 역사 콘텐츠 채널!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요절한 단종이나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 등 조선 왕조 역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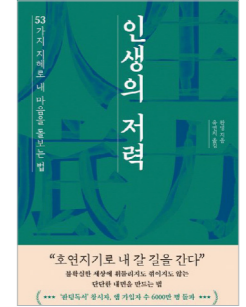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

<https://www.youtube.com/@LA-TDLR>

읽기와 문법은 알아도 영어 회화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는 영어 회화 완전 초보자를 위한 채널로, 목적과 타깃층이 분명하다. '기초다지기, 표현, 영어 대화 가이드' 등 회화 초보자에게 필요한 내용별로 동영상을 구성하고 제작하며, 실용적인 영어 표현, 말할 때 헛갈리는 문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준다. 올가을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를 활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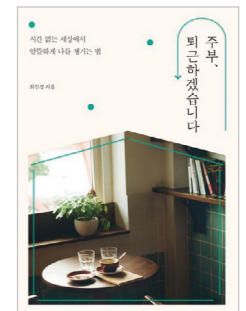
B O O K



인생의 저력

판딩 지음, 유연지 옮김, 미디어숲, 2023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 중 하나 '맹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주었다. 책의 저자인 판딩은 회원 수 6천만 명이 넘는 전자책 앱 '판딩독서'의 리더. 그는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확실하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이런 세상에 자꾸만 휘둘린다면, 단단한 내면을 만들기 위해 맹자의 문장을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주부, 퇴근하겠습니다

최경진 지음, 해움터, 2023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집안일에, '나가 아닌'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주부들. 그러다 보니 하루 끝에서 오늘 뭐 했냐는 질문을 들으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 <주부, 퇴근하겠습니다>는 이 같은 고민을 거듭하던 전업주부가 해결의 답은 시간의 쓰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쓴 시간 관리 에세이. 나 혹은 주변의 주부들에게, 그의 하루에는 퇴근이 있길 바라며 이 책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KNF life.
+
제철 건강

자연이
선물한
가을의
맛

홍합



천연 영양제, 홍합

속살이 붉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홍합'은 10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다. 속살이 붉은빛을 띠는 암컷과 백색의 크림빛이 도는 수컷으로 나뉜다. 칼슘, 인, 철분 등이 풍부한 고영양 식품, 홍합은 특히, 간 건강을 책임지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홍합은 간 해독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핵산, 불포화지방산 등도 많아 점점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과 겨울에 먹으면 더 좋다. 또한 숙취 예방에 탁월한 베타인 성분이 들어 있고 다량의 철분, 비타민C, 비타민B12, 엽산 등은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조혈작용을 도와 일상에 지친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명품 조연, 홍합

홍합은 어떤 재료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 짠맛이 적고 홍합 고유의 담백한 감칠맛이 풍부해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식재료이다. 국이나 탕, 찜 등 음식에 상관없이 홍합을 넣으면 그 감칠맛이 더해져 음식의 풍미를 올려준다.

홍합을 고를 때는 껍질이 두껍고 광택이 나며, 윤기가 흐르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하고 맛도 있다.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뽀얀 국물이 매력적인 홍합탕과 홍합미역국, 갖은 재료와 양념을 듬뿍 넣어 만든 홍합무침이나 홍합찜 등 다양한 레시피를 이용해서 홍합을 맛볼 수 있다. 올가을에는 자연과 가을이 선사하는 제철 홍합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지천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식재료가 있지만 가을하면 생각나는 맛은 바로 '홍합'이다. 올가을, 바다의 영양이 가득한 홍합으로 지난 무더위에 지쳐 잃어버린 입맛과 원기를 되찾아보자.

KNF life.
+
해시태그 이벤트

#가을이오면

마★한(5227)

- 가 을이오면 좋겠습니다
- 을 씨년스러운 겨울이 걱정되지만
- 이 만큼 적당한 날씨가 없습니다
- 오 색 단풍과 낙엽이 떨어지는 곳에서
- 면 치기하고 싶네요

♡ 👍 🗒

이★훈(2732)

가을이 되면 낙엽 쌓여 운치 있는 벤치에 앉아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고 싶네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큼 인생의 가을을 잘 음미해 볼 이벤트도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 🗒



정★진(9416)

가을이 오면 시골은 가을건이하느라 바쁩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이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호박, 가지, 고추, 생강, 노각 등등 익어가는 냄새가 풍겨 납니다. 빠알강게 물들어가는 고추를 따서 내리쬐는 햇빛에 말리고 있고, 노각은 장아찌를 만들려고 소금에 절이고 있어요. 가지는 올해 처음으로 말려보는 중입니다. 말린가지 요리는 잘 못해서 시도를 안했는데 옆에 사는 할머니께서 맛있게 하는 법을 알려 주셨어요. 토종맛의 음식을 배워보니 역시 이 맛이 한국의 맛이더라고요. 때를 놓치면 아까운 농작물을 버리게 되니 손놀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 시골입니다. 가을이 오면 해보는 행복한 고민이지요.

♡ 👍 🗒



#시월

김★미(6381)

- 시 원한바람이 부는 가을밤
- 월 광이 눈부시게 비추네요

♡ 👍 🗒

한★윤(7773)

- 시 간 좀 가라
- 월 요일아

♡ 👍 🗒

이★숙(2413)

- 시 간이 쌓이면 땡감도 흥시되더라
- 월 금이 쌓이면 누구도 부자되더라

♡ 👍 🗒

이★후(7172)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시월이란 계절로 말하자면 마음만은 청초한 자태의 소녀적 감성이 잠깐이라도 살아나니 매년 기다려집니다. 세월 살아내느라 마음을 수없이 다치고 살아 이젠 감각이 없다 생각했는데 작년엔가 길가다 김동규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듣고는 발길을 멈췄죠. 가슴이 콩닥콩닥 무언가 주체하지 못할 감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하늘은 푸르렀고, 시방은 가을단풍에 비로소 나의 제대로 된 마음이 돌아왔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시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렘이 깃들여집니다. 콧노래를 따라 부를 시월이 곧 오네요. 매월이 그러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 보는 계절도 있으니 좋네요.

♡ 👍 🗒



독자 마당



• 독자 후기 •



요즘 트렌드의 휴가법을 읽어보니 공감가는 게 많았습니다. 나 자신의 스타일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더 열심히 나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현(7355)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때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비우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화(4273)



자두가 다양한 영양의 보고임은 물론 피부노화를 예방해주고 요즘 제게 꼭 필요한 마그네슘까지 풍부하다는 것과 또한 자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민★호(7972)

• 7·8월호 스토쿠 문제&정답 •

2	9			6				
	4		8	7			1	2
8			1	9			4	
	3		7			8		1
	6	5			8		3	
1				3				7
			6	5		7		9
6		4					2	
	8		3		1	4	5	

2	1	9	5	4	3	6	7	8
5	4	3	8	7	6	9	1	2
8	7	6	2	1	9	3	4	5
4	3	2	7	6	5	8	9	1
7	6	5	1	9	8	2	3	4
1	9	8	4	3	2	5	6	7
3	2	1	6	5	4	7	8	9
6	5	4	9	8	7	1	2	3
9	8	7	3	2	1	4	5	6

- 7·8월호 스토쿠 당첨자 • 고★주(6090) 권★영(6577) 김★영(1605) 김★미(6381) 김★경(8033) 박★준(4828) 박★림(7478) 신★식(2714) 양★은(6424) 우★탁(6958) 이★종(6713) 이★숙(2413) 이★건(3822) 정★람(1725) 정★걸(0246) 정★나(1765) 정★진(6091) 정★진(9416) 주★희(7309) 최★은(7887) 최★순(3937) 하★비(3091) 한★윤(7773) 홍★준(7549)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응모 기간 2023년 10월 31일까지
- 📍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료>에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스한 이야기를 <원자력연료>와 함께 해주세요.



독자 마당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 간의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원자력연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독자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해시태그 이벤트

KNF 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해당 주제에 어울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주제어로 N행시, 주제어 관련 사진과 사연을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주세요.



11/12월호 주제어

#첫눈,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간식

② 두뇌 운동에 좋은 SUDOKU 게임

스토쿠는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구성된 표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완성한 결과지를 사진을 찍어서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주세요.**

4				9	1			
		9			7	4	2	5
	5	8	3	4		1	9	
6	9	1						
		3	9	6	4	7		
						9	6	3
	8	7		2	6	5	3	
3	1	5	8			6		
				1	5			9



- 📅 마감 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 📍 당첨자 선물 커피 상품권
-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 마당> 페이지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해시태그 이벤트나 스토쿠 게임 응모하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